

‘태풍의 눈’ 임채빈, 정종진 대항마

압도적 파워로 데뷔 3연승 질주
우수급 압도…경상권 기대주로
“챔피언 정종진에 견줄 실력 갖춰”

경륜에 슈퍼 신인이 나타났다. 요즘 경륜 팬들 사이에 화제는 최근 데뷔전을 치른 임채빈(25기·29세·A1·수성)이다. 임채빈은 광명 1회차 경주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하며 3연승을 기록했다. 이제 겨우 세 번의 경주에 나섰지만, 벌써부터 ‘경륜 챔피언 정종진(20기·33세·SS·김포)과 대적할 실력자가 등장했다’는 찬사까지 듣고 있다.

●우수급 감자 따돌린 폭발적인 스피드
임채빈의 최대 강점은 폭발적인 스피드다. 데뷔전에서 경쟁한 노태경(13기·37세·A2·북광주)은 2018년까지 특선급에서 준강자로 활약했던 선수였다. 현재는 우수급에 있지만 특선급의 빠른 속도에 적응이 잘 되어있고 특선급 최고 수준의 선행 선수를 뒤에서 마크한 경험도 풍부하다. 하지만 노태경은 신인 임채빈의 폭발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마크를 놓쳤다. 다음날 경주에서는 임채빈이 후미에 있던 경상권 김준일(23기·30세·A1·김해B)이 마크를 놓치지 않을까 배려하며 속도를 한 차례 줄이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일요일 결승에서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인 왕지현(24기·26세·A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경륜 25기 신인 임채빈. 임채빈이 데뷔전인 2020년 광명 1회차 경주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슈퍼 신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1·김포)과 강급 선수인 윤현구(22기·29세·A1·김포) 모두 임채빈을 내외선에서 따라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무너졌다.

●마크 한다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선행 전법은 보통 마크 선수들에 비해 체력 소모가 크다. 선두의 공기저항을 그대로 받기 때문이다. 후미에서 힘을 비축한 선수가 직선에서 남은 힘을 몰아쓰면, 선행 선수는 기량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마크 선수를 이기기 어렵다.

결국 자력승부(선행)는 어느 정도의 회생을 각오해야 하는 전법이다. 하지만 마크 선수가 선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둘의 간격이 벌어지면 선행 선수와 똑같이 공기저항을 받아 전법의 장점이 없어진다. 바로 이것이 임채빈만의 선행 전법 포인트다. 폭발하는 순간가속으로 마크 선수를 따돌려 자신과 동일하게 공기저항을 받게 만드는 차세대 선행 전법을 구사한다.

●경상권 선봉대장으로 기대감 업!
세대교체에 성공하고 선수 자원이 풍부한 수도권·충청권에 비해 경상권은 세대교체 실패와 빈약한 선수층으로 뒤처져 있다. 하지만 이제 임채빈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다. 잠재력만 가지고도 수도권·충청권을 충분히 위협할 수준이다. 큰 경주에서 선두로 나설 선행 선수의 부재로 고전하던 경상권에 임채빈은 매우 든든한 선봉대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재국 경륜뱅크 예상팀장은 “데뷔하자마자 SS급에 버금가는 기량을 보여주는 신인이다”이라고 임채빈을 평가했다. 배재국 예상팀장은 “천하의 정종진도 데뷔전에서는 이동근에게 추임을 허용했고, 정하늘은 우수급에서 김성근, 공민규 등에게 밀미를 잡혔는데 임채빈은 달랐다”며 “향후 특선급 판도를 좌지우지할 강자가 나왔다”고 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 황태자’ 정종진 4년연속 상금왕 등극



정종진

정종진(20기·33세·SS·김포)이 2019시즌 경륜 상금왕을 차지했다. 정종진은 2019 시즌에 상금왕과 함께 그랑프리 경륜, 최우수선수도 모두 4연패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정종진이 상금 3억4404만 원(광명·창원·부산 합산)으로 지난해 경륜 선수 중 가장 많은 상금을 받아들었다고 밝혔다. 2위는 2억8283만 원의 신은섭(18기·33세·SS·동서울), 3위는 2억7919만 원의 황인혁(21기·31세·SS·세종), 4위는 2억7673만 원의 정하늘(21기·29세·SS)이 올랐다. 1위부터 4위까지는 2018시즌 순위와 같았다.

5위~10위에서는 2018시즌 Top10에 없던 선수가 4명이나 새로 올랐다. 5위 성낙송(21기·30세·S1·상남) 2억2222만 원, 6위 황승호(19기·34세·SS·김포) 2억2220만 원, 7위 박용범(18기·32세·S1·김해B) 2억2115만 원, 8위 정해민(22기·30세·S1·동서울) 2억1392만 원, 9위 김주상(13기·37세·S1·세종) 1억8676만 원, 10위 김현경(11기·39세·S1·유성) 1억7966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경륜 평균상금(10회 이상 출전 선수 기준)은 719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등급별로 보면 특선급 1억6034만 원, 우수급 7124만 원, 선발급 4922만 원이었다. 역대 누적상금 1위는 29억8000만 원의 홍석한(8기·45세·A1·유성)이다. 정종진은 누적상금 16억9000만 원을 기록 중이다.

정용운 기자

력비공같은 경정 16기, 누가 될지 모른다

손유정, 신인 총 12명중 수석졸업
김보경·임지훈·김현주 등도 두각

미사 경정장에서는 요즘 16기 신인들의 경주가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1년 6개월의 학과와 실기 교육을 마치고 지난해 영종도 훈련원에서 졸업 경주까지

마친 16기는 총 12명이다. 이중 여자 선수가 수석 졸업한 손유정을 비롯해 김보경, 김현주, 염윤정, 이수빈 등 5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미사 경정장 수면 적응과 실전감각 향상을 위해 2020시즌 7회차까지 1경주는 신인들로 진행하고 있다. 14일 기준으로 16기 모두 한 차례씩 미사 경정장을 경험했다. 그

결과 김보경, 임지훈이 1회차에서, 김현주와 최인원이 2회차에서 데뷔 첫 우승을 기록했다. 김보경은 1일차 우승을 비롯해 2일차에도 입상해 두각을 나타냈다. 김현주도 탄탄한 기본기와 자신감 넘친 스타트로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손유정과 나중호의 집중력도 돋보였다. 중하급으로 평가받은 모터로 조건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입상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모터 배경만 괜찮다면 우승하기 충분한 기량으로 남은 신인 경주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두 번의 경주 모두 3착을 한 박민성과 홍진수도 경주 경험과 스타트 데이터가 쌓인다면 과감한 승부가 통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욱도 조종술이 안정적인 만큼 안쪽 코스에 배정받은다면 한 번 더 입상권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력을 갖췄다.

임병준 쾌속정 예상분석 전문가는 “어디로 뛸지 모르는 신인 경주라 경정팬 입장에서는 더욱 흥미로울 수 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갈 것인지 예상하고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배구팬 “현대캐피탈, 우리카드에 근소한 우세” 케이토토 이외의 모든 스포츠베팅은 불법입니다

배구토토 매치 5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15일 오후 7시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2020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우리카드전을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매치 5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결과, 참가자들은 홈팀 현대캐피탈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세트 승리 팀과 점수차를 matching 배구토토 매치 5회차 게임에서 1~3 세트별 예상 승리 팀은 모두 홈팀인 현대캐피탈의 차지로 돌아갔다. 1세트에서 현대캐피탈은 59.91%를 획득해, 40.09%를 기록한 우리카드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이어 현대캐피탈은 2, 3세트에서도 52.04%와 56.31%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원정팀 우리카드의 투표율은 각각 47.96%와 43.69%로 나타났다. 더불어 1~3세트까지의 각 세트 별 예상 점수 차이에서는 1세트(36.48%), 2세트(37.38%), 3세트(30.39%) 모두 3~4점차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카드가 강한 전력력을 가진 팀이지만, 양 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지난해



12월 14일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이 우리카드를 상대로 3-0 완승을 거둔 적이 있고, 이번 경기에서 안방의 이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와 같이 현대캐피탈이 우리카드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기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팅맨 이외의 스포츠베팅은 모두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불법스포츠도박 및 유사발매 행위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 toto.co.kr)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팅맨(www.betman.co.kr)뿐이다. 유사사이트

나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적발사례는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대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날이 갈수록 기세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참여금액에 한도가 없는데다, 전 세계의 스포츠를 대상으

적중상금·발매취소 환급금 찾아가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환급시효 기간이 임박한 적중상금 및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빠른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

상금이나 발매가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특히 골프토토의 경우 선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대회에 불참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발매를 마감한 이후에도 반드시 참여선수들의 명단을 살펴봐야 한다. 또, 각 종목별 대상으로 하는 스페셜 게임

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중독될 경우 본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2차 범죄까지도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만일 불법스포츠도박 또는 유사발매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www.cleansports.kspo.co.kr/1899-1119)로 신고해야 한다.

에서는, 1번 경기가 취소될 경우 자동적으로 전체 회차가 취소된다.

이렇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IBK기업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혹시라도 아직까지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